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한국 건설 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 개최

연구원은 지난달 13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한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설산업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메가 트렌드와 사회적 니즈의 변화에 맞춘 현행 산업 구조 및 시장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기존 경영 관행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정책·제도 혁신과 지속 성장의 길 모색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제1주제로 연구원의 박용석 연구위원이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니즈 변화와 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어 제2주제로 김현아 연구위원이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5대 미션’을 제안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준한 상임고문의 사회 아래 국토해양부, 건설업체, 학계, 언론계, 연구계 등의 건설 및 사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신사업 모델 제안’ 토론회 주최

연구원은 지난달 20일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대학 교수 및 학생, 건설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신사업 모델 제안’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는 국내 조선산업과 건설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불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과 조선, 두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연구원의 이복남 연구위원은 ‘건설과 조선의 융합 시나리오 구상’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어서 현대중공업의 이종인 부장과 대우건설의 이용섭 상무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조선과 건설의 융합 사례(조선 관점)’, ‘조선과 건설의 융합 사례(건설 관점)’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복남 연구위원의 사회로 주제 발표자 및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토론이 있었다.

전주에서 「제21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열어

연구원은 국토연구원 및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전북 전주에서 제21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은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차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워크숍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건설경기 현황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제21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에서는 양국간의 최근 경제와 건설산업 동향 및 전망에 대하여 발표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국의 하도급제도와 관련한 발표 및 토론도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연구원의 빈재의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장기 침체 비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CERIK